



토론토의 류현진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탬파베이 최지만

연합뉴스

# MLB 코리안 빅리거 2월 초 본토 상륙

### 류현진·김광현·최지만·김하성 국내서 담금질 훈련장 사용 제한적... 예년보다 출국일 늦어

2021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빌 '코리안 빅리거' 4명이 모두 '2월 초'로 출국 일정을 잡았다. 코로나19가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출국 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4명 중에서는 류현진이 가장 먼저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인 훈련 중인 류현진은 이번 주 중으로 제주 훈련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출국 준비를 한다.

김광현은 이달 말까지 부산과 상동에서 훈련하다가, 2월 초에 미국으로 이동한다. 투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타자 최지만과 김하성은 2월 5일 이후로 출국일을 잡을 계획이다. 최지만은 인천, 김하성은 서울 고척돔에서 훈련 중이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은 2월 15일 전후로 투·포수조를 소집하고, 2월 20일 야수조를 모아 본격적인 훈련을 한다. 지난해 류현진과 김광현의 '공식 소집일'은 각각 2월 13일과 2월 12일

이었다. 최지만은 2월 18일에 타자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코리안 빅리거는 굳이 소속팀 캠프에 조기 합류하지 않아도 미국에 훈련할 장소가 있었다. 지난해까지 KBO리그 SK 와이번스는 플로리다에 캠프를 차렸다. 김광현도 세인트루이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기 전, SK 전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다. 류현진은 2019년까지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을 찾아 몸을 풀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험에 시달리는 2021년 2월에는 코리안 빅리거가 KBO리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각 구단에 '스프링캠프 시작일 전에, 각 팀 훈련장 사용을 제한한다'고 전하면서 팀 훈련장 사용에도 제약이 생겼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코리안 빅리거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일정을 택했다. 빅리거를 보유한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출국 일정이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다. 스프링캠프 일정만 보면 2월 초 출국이 합리적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예전에는 1월에 출국해 미국에서 훈련할 방법이 많았다. 지금은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걸 선수들도 편안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제21대 제주태권도협회장 김종민씨

### 각축 속 2표 차이로 당선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2표차'로 당락이 좌우됐다.

도태권도협회는 지난 17일 '제21대 도태권도협회장 선거' 결과 김종민(61·사진) 전 서귀포시태권도협회장이 당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김종민 당선자는 총 29표 가운데 9표를 획득해 당선자의 영



김종민

어를 안았다. 이어 윤상택·최철영 후보 각 7표, 김창기 후보 6표 등이다.

김 당선인은 남주고등학교와 한양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위원, 서귀포시태권도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송은범기자

## 흥국생명 최다승·승점 신기록 쓸까

### 2020-2021 여자 프로배구

프로배구 2020-2021시즌 여자부에서 독주하는 흥국생명이 시즌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울지 시선이 쏠린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 종료로 앞둔 21일 현재 시즌 16승 3패, 승점 46을 기록해 2위 GS칼텍스(12승 6패·승점 34)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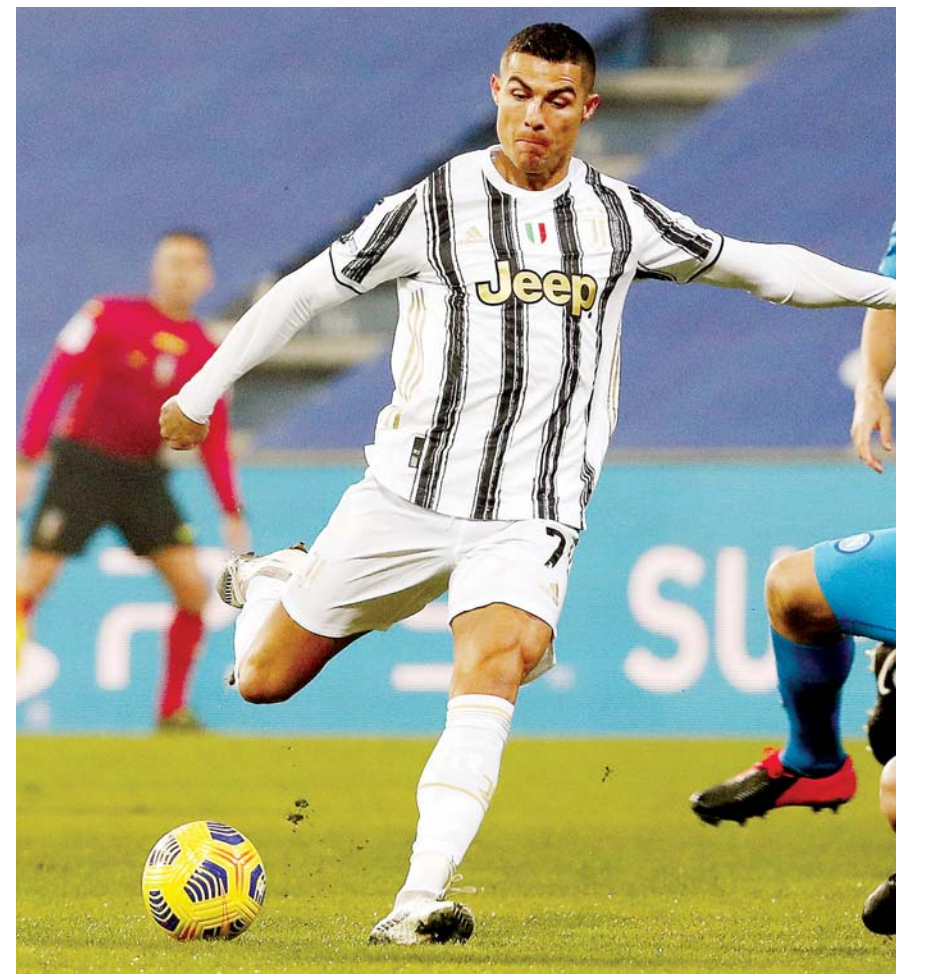
국의 생활을 접고 11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과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세터 다

영 쌍둥이 자매를 앞세워 흥국생명은 시즌 전 예상대로 1위를 뺏기지 않고 독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시즌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6라운드를 치른다는 가정에 따라 흥국생명의 남은 경기는 11경기다. 남은 경기에서 9승을 따내면 최다승 타이틀을 이룬다.

세트 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겨 승점 3을 9차례 반복하면 최다 승점 타이틀도 낸다.

압도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을 8년 만에 경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호날두의 슛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의 마페이 스타디움에서 나폴리와 치른 이탈리아 슈퍼컵 결승전에서 호날두가 슛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호날두의 선제 결승골과 알바로 모리타의 백기 골을 묶어 유벤투스가 나폴리를 2-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올 시즌 우승경쟁 감독 '십인십색'

### KBO리그 사령탑 지형도 신임 4명·2년차 3명 도전

2021시즌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는 4명의 '신임 사령탑'이 등장한다. 지난 시즌 최하위의 수모를 겪은 한화 이글스는 '육성 전문가' 카를로스 수베로(49)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대거 정리한 한화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영입하며 팀 체질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한국시리즈 우승, 2019년 정규시즌 2위에 오르는 등 강팀으로

군림하다가 2020년 9위로 추락한 SK 와이번스도 신임 사령탑 김원형(49) 감독과 새 출발 한다. 김원형 감독은 SK 창단 멤버다. SK가 첫 우승을 차지한 2007년 팀의 주장이기도 했다. SK는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감독과 재도약을 노린다. 류중일 전 감독과 결별한 LG 트윈스도 'LG 출신 스타' 류지현(50) 전 수석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1994년 LG에 입단해 그해 신인왕을 수상하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류지현 감독은 지도자 생활도 LG에서만 했다. LG는 1994년 이후 한 번도 챔피언

타이틀을 얻지 못했다. 팀을 잘 아는 류지현 감독이 팀에 다시 한번 신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오랫동안 사령탑을 결정하지 못하던 키움도 2009년부터 팀과 함께 한 홍원기 전 수석코치를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2020년에도 한국프로야구에는 신임 사령탑 4명이 있었다. 정규시즌 말미에 팀을 떠난 손혁 전 키움 감독을 제외한 3명은 '2년 차 감독'으로 2021시즌 도약을 노린다. 메이저리그 스타 플레이어, 감독까지 역임한 맷 윌리엄스(56) KIA 감독은 지난해 6위로 아쉽게 놓친 포스트시즌엔 티켓을 향해 다시 된다.

시즌 초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7위로 추락했던 롯데 자이언츠의 허문회(49) 감독에게도 2021년 성적 이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 8위에 머문 '전통의 명가' 삼성 라이온즈는 좌타 거포 오재일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이제 삼성은 허삼영(49) 감독에게 '결과'를 기대한다. 2021년 KBO리그 '최장수 사령탑'은 김태형(54) 두산 베어스 감독이다. 2015년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2020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3번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20년 창단 첫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NC 다이노스에 선물한 이동욱(47)감독과 막내 구단 kt wiz를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무대에 올려놓은 이강철(55) 감독은 2021년 '3년 차 사령탑'이 된다. 연합뉴스

## 축

# 취 임

## 제25대 신성학원총동문회장

**고 경 심** (19회)

신성학원총동문회 (신성여중·신성여고)

**제2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5대 회장단**

회 장 고경심(19회), 상임부회장 현순화(20회)  
 부 회 장 권정숙(21회) 김도희(22회) 김민순(23회) 송여옥(24회)  
 사무국 장 정윤희(26회)

## 제24대 신성학원총동문회

## 축

# 수 상

## 제6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농업기술상 본상

**이 성 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전 경 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 정 훈**

제6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농업기술상 본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 필 환 의 회원일동